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0. 10. 13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환경보전국	보도자료 PRESS RELEASE	산림휴양과장	이창흡	☎ 710-6760
		산림휴양팀장	지경찬	☎ 710-6761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도내 국·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운영

- 제주도,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산림청 운영 방침 적용 -
- 숙박시설·입장 인원·체험 프로그램 등 방역지침 준수 하에 일부 허용 -

-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, 도내 국·공립자연휴양림, 치유의숲, 수목원, 생태숲의 입장 인원과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제주도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, 국·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운영 방침이 마련됐다.
 - 이에 따라, 도는 절물자연휴양림, 교래자연휴양림, 붉은오름자연휴양림, 서귀포자연휴양림, 서귀포치유의숲, 한라수목원, 한라생태숲 등 도내 국·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산림청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.
- 국·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휴양림 등 숙박) 자연휴양림 등은 복합동을 제외한 단독·연립동의 10인 미만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, 숲속 야영장의 테크는

50% 수준으로 운영한다.

- (입장 인원) 해당 시설의 수용가능 인원(실내·외)의 50% 수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.
 - (교육·치유 등 숲체험 프로그램) 1회 20인 미만으로 운영한다.
 - (방역지침 준수)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, 입장객 관리를 위한 명부작성 및 입장 전 발열검사는 2단계에 이어 1단계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.
- 한편, 이번 운영계획은 10월 12일 0시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되며, 사립시설(수목원 2, 정원 1)에 대해서도 국·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